

석유·가스 등 에너지 시장 2013년 4분기 동향 및 전망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4
1. 업스트림(Upstream) 산업	4
2. M&A 거래	19
III. 주요 이슈	23

작성 :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박동완 (3779-6670)
 dwpark@koreaexim.go.kr

< 요약 >

- (석유) 9월 초 연중 최고치 기록 이후 미 원유재고 부담감으로 11월말 까지 하락, 12월 들어 리비아 공급 차질 등으로 상승하여 100달러선 회복
 - 천연가스 가격은 11월 초 이후 급등하여 12월 말 연중최고치 기록 (12.23일 \$4.463/mmBtu)
 - 유연탄 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12월 말 87.25달러로 마감

- (에너지 가격 전망)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2014년 평균유가(WTI油)를 전년대비 배럴당 4.58달러 낮은 93.33달러로 전망
 - EIA는 2014년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을 전년대비 mmBtu당 0.17달러 상승한 4.01달러로 전망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동향)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미국 셰일오일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OPEC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미지역 셰일오일 등 非OPEC 생산증가로 인해 OPEC 시장 점유율이 중기적으로(향후 10년 정도) 감소할 수 있겠으나, 중동지역의 원유 생산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아 장기적으로는 OPEC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35년 OPEC의 석유시장 점유율이 46%에 이르게 될 것이며, 대OPEC 수요는 4,520만 b/d에 달하는 등 장기적으로 OPEC이 여전히 세계 석유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2년 OPEC 시장 점유율 43%와 대OPEC 수요인 3,760만 b/d 대비 증가한 수준

- (주요이슈 :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 전망) Barclays는 현재 석유·가스 산업이 장기간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글로벌 상승세에 있으며,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비가 전년대비 6.1% 증가한 7,2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북미 지역 투자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1,990억 달러로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를 주도하겠으며 북미 외 지역에서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5,24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에너지 가격 동향

- (석유) 9월 초 연중 최고치 기록 이후 미 원유재고 부담감으로 11월말까지 하락, 12월 들어 리비아 공급 차질 등으로 상승하여 100달러선 회복
 - 10월 중 유가는 월초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중반 이후 원유 재고 급증 등으로 전월의 하락세 지속(10.1일 102.04\$/bbl → 10.31일 96.38\$/bbl)
 - 11월 초 미 원유재고 부담감, ECB 기준금리 인하와 미 3분기 GDP 호조 소식으로 인한 달러 강세 영향, 미 원유재고 부담 등으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11월 유가는 92.72달러로 마감
 - 12월 들어 미국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기대감, 리비아 원유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미 원유재고의 예상외 감소 등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리비아 생산 재개 소식 등으로 12월 말 98.42달러로 마감
- (천연가스) 11월 초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 12월 말 연중최고치 기록
 - 10월 중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3.82/mmBtu, 10.14일)했으나 이후 천연가스 재고 증가로 10월 말 3달러 중반대로 하락
 - 11월 들어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천연가스 가격 급등(11.19일 \$3.556/mmBtu → 12.23일 \$4.463/mmBtu)
- (전력용 유연탄) 10월 중순 이후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상승
 - 10월 중반까지 글로벌 수요 부진,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톤당 80달러 선의 가격약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80달러 중반대로 반등한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말 87.25달러로 마감
- (우라늄) 수요 감소 우려 확대로 하락세를 보이며 9월 중순 연중 최저치를 기록(9.13일, 34달러/lb)한 이후 가격 약세 지속

<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1	2012	2013				연중 최고	연중 최저
				1/4	2/4	3/4	4/4		
유가 (\$/배럴)	WTI	98.83	91.82	97.23	96.56	102.33	98.42	110.53 (9.6.)	86.68 (4.17.)
	Dubai	104.89	107.81	107.07	100.38	103.58	107.88	113.62 (2.13.)	96.71 (4.18.)
천연가스 (\$/백만BTU*)		3.0	3.351	4.024	3.565	3.56	4.23	4.463 (12.23.)	3.113 (1.9.)
유연탄(전력용) (\$/ton)		111.1	93.75	89.86	77.85	79.15	87.25	96.5 (2.6.)	75.9 (7.12.)
우라늄 (\$/lb)		51.8	43.5	42.25	39.65	35.25	34.5	44.0 (1.31.)	34.0 (9.13.)

주) 유가는 WTI油 선물 익월물(NYMEX)/브렌트油 선물 익월물(ICE)/두바이油 현물가격, 천연가스 선물 익월물(NYMEX), 유연탄은 뉴캐슬(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국제금융센터, KoreaPDS

2. 에너지 가격 전망

□ (유가) EIA는 2014년 평균유가(WTI油)를 전년대비 배럴당 4.58달러 낮은 93.33달러, 2015년은 89.58달러로 전망¹⁾

- 2014년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21만 b/d 증가한 9,159만 b/d가 될 전망, 2015년에는 약 137만 b/d 증가한 9,296만 b/d가 될 전망
- 2014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60만 b/d 증가한 9,152만 b/d가 될 전망
 - OECD 국가 생산량은 북미 타이트 오일,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38만 b/d가 증가한 2,516만 b/d가 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OPEC 생산량은 전년대비 35만 b/d 감소한 3,544만 b/d 전망

1) 전망시기는 2014년 1월

- EIA 등 주요 유가전망 기관들은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 공급 증가, 이란 핵협상 타결 등에 따른 유가 약세를 예상하며 2014년 평균유가를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구 분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3년	2014년				
			평균	1/4	2/4	3/4	4/4	평균
유 가	CERA ('13.1.9.)	Dubai	105.52	103.35	100.12	98.40	98.04	99.98
		Brent	108.66	106.92	104.50	103.25	102.42	104.27
		WTI	97.90	97.42	98.89	96.94	95.58	97.21
	EIA ('13.1.7.)	WTI	97.90	95.00	94.00	94.33	90.00	93.33
		PIRA ('13.12.23.)	Brent	108.66	108.00	104.85	107.10	105.00
	WTI		97.90	96.65	96.85	99.65	94.15	96.85

주)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2014년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을 전년대비 mmBtu당 0.17달러 상승한 4.01달러, 2015년은 4.23달러로 전망

- 2014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가 전년대비 15.8억cf²/d(2.22%) 감소한 696.3억cf/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산업용 수요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겠으나 가정용, 상업용, 발전용 수요가 전년대비 낮아지며 전체 천연가스 수요는 감소할 전망
 - 특히 발전용은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은 전년대비 5.8억cf/d(2.5%) 감소한 217.3억cf/d가 될 전망
- 2014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대비 14.5억 cf/d 증가한 716.6억 cf/d 수준이 될 전망
 -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 경제성이 높은 지역 사업의 성숙화로 개발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이는 곧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2)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M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1. 업스트림(Upstream)³⁾ 산업

가. MENA(중동/북아프리카)

□ 알제리, 자국 내 700 Tcf⁴⁾ 규모의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9월 23일)

- 알제리는 셰일가스 탐사광구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비전통자원 개발에 앞서 탄화수소법상 요구되는 각종 승인들을 취득하는 중
- 2013년 6월 알제리 국영기업 Sonatrach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제리 셰일가스 자원량은 700 Tcf 수준
 - 이는 미 EIA가 추정된 707 Tcf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근 리비아(122 Tcf), 이집트(100 Tcf)와 비교할 때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알제리는 작년 초 셰일가스 탐사 촉진을 위해 석유·가스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비전통자원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

□ 리비아, 치안불안 등으로 상당기간 원유 생산량 회복이 어려울 전망 (12월)

- 리비아는 2011년 10월 시민혁명을 통해 42년간의 카다피 독재정권을 타도한 이후, 한 때 140만 b/d까지 회복되었던 원유 생산량이 2013년 5월 이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경비업자들의 파업 등으로 최근 20만 b/d 수준으로 감소
- 리비아 석유부 장관은 주요 수출터미널의 가동이 재개되는 대로 160만 b/d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전, 터미널 가동중단 지속으로 근시일 내 원유생산 정상화는 힘들 전망
- 이에 따라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3)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② 부문을 미드스트림(Midstream), ③ 이후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4) Tcf: Trillion cubic feet(조 입방피트)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속으로 향후 신규 광구분양과 국제석유기업 투자유치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

- 당초 2013년 말 실시 예정이었던 광구분양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석유기업 투자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석유법 및 표준 계약 모형 개정작업에도 차질 예상
- 이미 ExxonMobil이 리비아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미국의 Marathon이 북아프리카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나. 유럽

□ 프랑스 헌법재판소, 셰일자원 탐사를 위한 수압파쇄 금지법에 합헌 판결(10월 11일)

- 프랑스에서는 2011년 환경문제로 인해 수압파쇄 방식을 사용한 셰일 자원 개발을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미국 Schuepbach와 프랑스 Total의 개발 허가권이 취소 조치됨
- 이에 Schuepbach는 지열 탐사 시에도 유사 방식이 사용된다며 2013년 7월 수압파쇄 금지령 해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그러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셰일자원 탐사 시에는 화학물질이 사용 되는 만큼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반박하며, 수압파쇄 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
- EIA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서유럽 전체 매장량의 절반이 넘는 137 Tcf 규모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음
 -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 등으로 셰일가스 개발 관련 논의가 재개되기도 하였으나 2013년 7월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셰일가스 탐사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밝힘

□ 그린피스, 영국 셰일가스 개발에 법적 대응(10월 15일)

- 영국 셰일가스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개발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지속 중에 있음

- 그린피스는 잉글랜드에서 수압파쇄법을 사용한 셰일가스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영국 전역에서 진행될 셰일가스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
 - 그린피스는 석유기업들의 수압파쇄를 이용한 시추지점이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추 시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영국 석유회사 Cuadrilla는 그동안 영국에서 철로, 전기, 통신 등 지하 인프라 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된 것처럼 셰일가스 개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언급
- 이탈리아 Eni, 미 독립계 Quicksilver Resources와 탐사협약을 맺고, 서부 Texas Delaware 분지 내 셰일오일 개발에 참여하기로 결정(11월 5일)
- Eni는 초기 탐사비 명목으로 5,200만 달러를 Quicksilver에 지급하고 Leon Valley 지역 라이선스(212km²) 지분 50%를 취득하고, 동 지역 내 다른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 지급 없이 Quicksilver 보유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
 - 현재 Leon Valley 지역 생산량은 전통, 비전통 자원을 합쳐 50만 boe/d 수준
 - Leon Valley가 위치한 Delaware 분지는 최근 비전통 원유 생산이 급증하여 석유회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Eni는 동 분지 생산량이 향후 5년 내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ni는 2009년에도 텍사스 북부 Fort Worth 분지 Barnett 광구에 대해 Quicksilver와 협약을 맺고, 현재 셰일가스 생산 중
 - Eni는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셰일가스를 개발 중으로, Quicksilver로부터 차용한 기술을 폴란드 셰일가스 개발에 적용할 계획
- 영국, 북해지역 유전 개발비용 상승으로 사업에 차질(12월 2일)
- 북해 지역 Rosebank 유가스전의 운영권자인 Chevron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비용 감축을 위해 참여사를 모색 중으로 2014년

최종 투자결정을 내릴 예정

- Rosebank 유가스전 가채매장량은 2.4억 boe이며,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시설(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및 생산정과 주입정 시추, 심해저 시설, 가스관 설치가 개발계획의 기본 내용
- Rosebank 유가스전의 개발계획 재검토에 따라 영국 석유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서틀랜드 서부지역의 석유개발 차질 우려 확산
 - 서틀랜드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Bressay 유전도 운영권자인 Statoil이 비용감축 및 개발계획 재검토를 위해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
 - Bressay 유전 개발비용은 60억~70억 달러 규모로 가채매장량은 2억~3억 배럴
- 영국 석유산업 협회(Oil & Gas UK)는 북해 유전 운영비용 상승이 북해 신규 유전개발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힘
 - 현재 개발비용은 boe당 48.7달러 수준이며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국정부, 셰일가스 규제관련 로드맵 발표 (12월 17일)

- 영국은 현재 에너지기술 전문업체 AMEC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셰일가스 생산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으로 2014년 3월까지 컨설팅작업을 지속할 계획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가 향후 영국 내 가스수요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석유산업 고용률이 7% 증가하고, 전 지역사회 수입이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보고서에는 셰일가스 개발 시 발생 가능한 수질오염 관련 내용도 포함
- 영국 수상은 EU가 신규 셰일가스법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럽 내 셰일가스 개발 지연으로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며 우려 표명
 - 한편 영국 셰일가스 산업은 환경단체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영국 셰일가스 탐사기업 Cuadrilla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근거 없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 아프리카

□ 모잠비크, 2013년 말까지 천연가스 법을 승인하고 2018년 LNG 수출 개시 계획(10월 16일)

- 모잠비크 정부는 가스개발을 통해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 비료 생산 등에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천연가스 개발 관련 마스터 플랜 수립
- Eni와 Anadarko Petroleum이 2010년부터 Rovuma 분지에서 170 Tcf 이상의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한 이래 모잠비크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LNG 수출을 목표로 가스개발 추진
 - Eni, Anadarko도 2018년 수출 개시를 목표로 LNG 생산시설을 공동 건설 중
- 그러나 아시아 LNG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최근 카타르와 호주 등에서 가스전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

□ 독립계 석유기업들, 동아프리카 탐사 활동 확대 움직임(11월 26일)

- 올해 초 영국 Cove Energy 출신 임원들이 설립한 탐사회사 Discover Exploration는 현재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위치한 코모로섬 해상에 탐사광권(지분 6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해탐사를 확대할 계획
- 나이지리아 독립계 석유회사인 Sapetro(South Atlantic Petroleum)도 모잠비크 해상 시추결과 원유 수십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동아프리카 최초로 심해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케냐 Turkana 지역에서는 2013년 10월 폭력시위로 조업을 중단했던 Tullow가 조업재개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지역의 정치상황과 안보가 불안정해 다수의 석유회사들이 생산차질을 빚었던 나이지리아 Niger Delta 지역과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

라. 미주

□ 미국, 캐나다 등이 세계 셰일가스 생산 주도(10월 23일)

-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만이 셰일가스 상업생산에 성공했으며 2012년 미국 총 가스 생산량 중 셰일가스가 39% 차지, 캐나다는 셰일가스 생산량이 전체 가스 생산의 15% 차지
- 2012년 미국 총 dry 천연가스 생산량은 65.7 Bcf⁵⁾/d, dry 셰일가스 생산량은 25.7 Bcf/d를 기록
- 2012년 캐나다 총 dry 천연가스 생산량은 14.0 Bcf/d, dry 셰일가스 생산량은 2.0 Bcf/d를 기록
 - 캐나다 셰일가스 주생산지는 Horn River(BC⁶⁾주), Montney(BC주, 앨버타주)임
 - 최근 이 두 셰일층의 셰일가스 생산은 가스관 인프라 부족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

□ 캐나다 앨버타산 가스,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신규 시장 개척 필요(10월 14일)

- 앨버타주는 가스 개발 산업이 시작된 이후 60년 간 캐나다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 온 지역으로 캐나다 내 수요의 대부분과 미국 수요의 최대 20%를 충족시켜 왔음
- 그러나 미국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 가스 생산량이 급증하며 캐나다의 對미국 가스 수출량은 2008년 3.8 Tcf에서 2012년 2.96 Tcf로 25% 감소했고, 캐나다 내 공급량도 감소 추세
- 최근 앨버타산 가스는 캐나다 동부지역 시장을 미국의 Marcellus, Utica 셰일층에서 생산된 셰일가스에 빼앗기고 있음
 - Marcellus, Utica 셰일가스는 캐나다 동부 국경 접경지역에 있어 앨버타주 보다 더욱 저렴하게 공급 가능

5) Bcf: Billion cubic feet(십억 입방피트)

6) British Columbia 주

- 이에 따라 동부로 가스를 수송하는 TransCanada의 Mainline 가스관 수송량이 급감하여 Mainline 가스관 중 일부를 송유관으로 전환한 뒤, 앨버타산 원유를 캐나다 동부지역 또는 미국 동부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추진 중
 - 앨버타산 가스의 수요 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오일샌드 생산에 쓰이는 가스연료 등 앨버타주 내 수요를 촉진하고자 함
 - 앨버타 지역은 오일샌드 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오일샌드 생산을 위해 지하에 열을 가하는 데 연료로 주로 가스 사용
 - 현재 350 만 b/d의 오일샌드를 생산하는 데 약 1.5 Bcf/d의 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오일샌드 생산량이 500만 b/d로 증가하면서 가스 사용량도 3 Bcf/d로 증가할 전망
 - 전문가들은 앨버타주가 전통적인 미국시장 대신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신규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앨버타산 가스 생산량은 시추활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 Bcf/d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대체시장이 부족해 앨버타주 가스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IEA, 최근 미국 셰일오일 생산증가가 중장기적으로는 OPEC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11월 12일)
- 북미지역 셰일오일 등 비전통석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미국이 2년 내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
 - IEA는 非OPEC 생산이 2035년에 5,290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2년 기준 4,940만 b/d)
 - 동 기간 非OPEC 국가들의 타이트 오일 및 오일샌드 등을 포함한 비전통 석유 생산량은 2012년 440만 b/d 대비 거의 3배 증가한 1,230만 b/d를 기록할 전망
 - 특히 미국은 원유생산이 점차 증가해 2035년이 되면 자국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
 - IEA는 비OPEC 생산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OPEC 생산 감소를

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OPEC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 IEA는 전통석유와 달리 셰일오일 생산은 생산 가능 기간이 짧고,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
 - 한편 OPEC 보고서에서도 북미지역 타이트오일 생산량이 2017~2019년 정점에 이른 뒤 시추효율성 및 수압파쇄 기술의 개선이 정점에 이르고, 생산성 높은 지역의 개발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타이트오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35년 OPEC의 석유시장 점유율이 46%에 이르게 될 것이며, 대OPEC 수요는 4,520만 b/d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2년 OPEC 시장 점유율 43%와 대OPEC 수요인 3,760만 b/d(NGL⁷⁾ 포함) 대비 증가한 수준
- IEA는 OPEC 시장 점유율이 중기적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감소할 수 있으나, 중동지역의 원유 생산비용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강조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OPEC은 여전히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

□ 서부 캐나다 Montney 지층이 세계적인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로 평가되며, 천연가스 잠재력 부상(11월 14일)

- 동 지역 천연가스 부존량이 449 Tcf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카타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분지로 평가
 - 이는 2012년 캐나다 천연가스 수요(3.1 Tcf)를 감안할 경우 향후 145년간 생산가능한 양
 - Montney 지층의 부존량 449 Tcf 중에서 BC주는 271 Tcf, 앨버타주는 178 Tcf를 차지
- BC주정부는 세계적인 대규모 천연가스 탐사 자원량으로 인해 주내 10만 개 일자리 창출 및 부상하는 LNG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7)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 NGL): 천연가스로부터 LNG 및 LPG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병산되는 액화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LNG 수출을 상업화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 산적
 - 캐나다 서부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및 전통유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연방정부 천연자원부 장관은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협상이 제 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미국, 중류부문 메이저 기업 출현 가능성 제기(11월 22일)

- 글로벌 컨설팅 기업 Deloitte는 미국 내 셰일 자원 생산 증가로 석유 및 가스 수송이 증가하면서 수송을 독점하게 될 중류부문 메이저 기업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또한 2006년~2012년간 중류부문 투자금액이 1992년~200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35년까지 중류부문에만 2,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힘
- 미국 최대 중류부문 기업인 Kinder Morgan의 경우 기업가치만 1,1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북미지역 에너지 기업 중 세 번째에 해당
- 2006년 미국 중류부문 기업 중 기업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기업 수는 7개에 불과했으나 최근 25개로 급증
- 한편 기업가치 5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인수합병의 목표가 될 것이며, 인수합병을 통해 중류부문 메이저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류부문은 아직 상류부문의 수요 증가에 편승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바, 미국 중류부문 기업 중 4~6개 기업만이 메이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멕시코, 2014년 셰일자원 개발 가속화 전망(11월 25일)

- 멕시코는 자국에 602억 boe의 셰일자원이 부존하며 미국 Eagle Ford 셰일플레이가 연장된 북부 소재 5개 분지에 셰일자원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산

- 북부 분지에는 Tampico-Misantla(350억 boe 부존), Burgos(110억 boe), Burro-Picachos(98억 boe), Sabinas, Chihuahua가 있으며 이 중 Burgos 분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기업이 서비스계약에 따라 가스를 생산 중
- 작년 6월 미국 EIA는 멕시코의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셰일 자원량이 1,166억 boe이라고 발표
 - 이 중 셰일가스가 545 Tcf(세계 6위), 셰일오일이 130억 배럴(세계 11위)
- 멕시코는 셰일자원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14년 셰일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으면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셰일정 17공을 시추했으며 이 중 16공에서는 가스 발견, 1공에서는 원유가 발견되어 미미한 수준이나 셰일오일 및 가스를 생산 중에 있음
 - 향후 시추리그 10기를 동원하여 시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2014년 멕시코 시추리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2018년에 가스 순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12월 17일)

- EIA는 미국이 LNG 수출능력 증대, 대 멕시코 수출 가스관 증설 등으로 기존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18년에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
 - EIA는 미국 LNG 수출량이 2020년 2 Tcf(5.5 Bcf/d), 2030년 3.5 Tcf(9.6 Bcf/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27년까지 1.6 Tcf(4.5 Bcf/d)가 될 것으로 전망한 기존 보고서와 비교하면 대폭 상향조정된 수치
 - 미국의 대 멕시코 가스(PNG) 수출량은 2012년 0.6 Tcf에서 2040년 3.1 Tcf로 매년 6% 증가할 전망
 - 캐나다로의 가스(PNG) 수출은 2012년 1 Tcf에서 2040년 1.4 Tcf로 매년 1.2% 증가할 전망

- 반면 캐나다로부터의 PNG 수입량은 2033년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
- 한편 EIA는 미국 가스 생산량이 기존에 전망⁸⁾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40년 37.5 Tcf(102 Bcf/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저렴한 가스 가격에 힘입어 발전용 연료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 35%로 증가⁹⁾하여 석탄(32%)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마. 러시아/중앙아시아

□ Rosneft(러)·CNPC(중), 동시베리아 자원개발 합작기업 설립(10월 17일)

- 2013년 10월 17일 러시아 Rosneft와 중국 CNPC가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기업(Rosneft 51%, CNPC 49%) 설립계약 체결
 - 최근 Rosneft가 100% 지분을 인수한 동시베리아의 Taas-Yuryakh Neftegazdobycha가 신설 합작기업의 운영기반이 됨
 - Taas-Yuryakh Neftegazdobycha는 동시베리아 최대 유전 중의 하나인 Srednebotuobinskoye 유전의 Central 및 Kurung 광구¹⁰⁾에 대한 생산 라이선스 보유
 - Srednebotuobinskoye 유전은 2013년 10월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 2만 b/d를 거쳐 2017년 10만 b/d를 생산할 전망
- 합작기업이 생산한 원유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에 대한 내수공급 및 중국 등 아·태지역으로 수출 예정
 - Rosneft는 러시아 극동에 16만 b/d 규모의 Komsomolsk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만 b/d 규모의 석유화학 및 정유단지 건설을 추진 중
 - 중국 내에서는 Rosneft가 CNPC와 공동으로 32만 b/d 규모의 텐진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 중으로(Rosneft 49%, CNPC 51%), 정유공장이 가동을

8) 기존 보고서에서는 2040년 미국의 가스 생산량을 33.1 Tcf(90 Bcf/d)로 전망

9) 기존 보고서에서는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 30%가 될 것으로 전망

10) 2개 광구의 매장량은 원유 9억 7,800만 배럴, 가스 5,474 Bcf(155 Bcm)임

개시하면 CNPC에 정제물량을 공급하기로 합의

□ 러시아, 세계 LNG 시장에 대한 러시아 점유율 확대를 위해 LNG 수출 자유화법 채택¹¹⁾(12월)

-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 LNG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점유율을 10%로 확대할 계획
- LNG 수출 자유화법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기업이 아래 2개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경우 LNG를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바, 독립계 Novatek과 국영 Rosneft가 이에 해당
 - ① 2013년 1월 1일 기준 LNG 플랜트 건설 또는 LNG용 가스 생산에 대한 허가를 득했거나 ②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영기업으로서 보유 해상광구 생산가스 또는 PSA 생산가스를 액화하는 경우
- Novatek은 2016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연 550만 톤 규모의 LNG 설비 3기를 건설하는 북극 야말 LNG 프로젝트 진행 중
 - Novatek은 당초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3년 9월 중국 CNPC에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마케팅 담당 파트너사에 9% 지분을 추가 매각할 계획
- Rosneft의 경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할린에 연간 500만 톤 규모의 LNG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15년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릴 예정
 - 2013년 6월 ExxonMobil과 동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 아시아

□ 중국, 원유생산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근 구소련 국가에서 상류 자산 획득(12월)

- 최근 두 달 사이 중국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상류자산 획득에

11) 다만 PNG 수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영 Gazprom이 지속 보유

연이어 성공

- 10월 17일 CNPC가 Rosneft와 야쿠티아 Srednebotuobinskoye 유전 개발을 위한 49 : 51 합작기업 설립 MOU 체결
- 11월 초 CNPC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MunayGas와 카자흐스탄 Kashagan 8.33% 지분 획득에 대한 계약 완료
- 11월 CNPC가 야말 LNG 프로젝트에 20% 지분으로 참여(farm-in)하는 데 대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득함
- 중국기업의 해외 상류부문 M&A는 매장량 및 신기술 확보 뿐 아니라, 자국 정부가 정한 생산량 목표치 달성의 목적도 존재
 - 중국 최대 원유 생산기업인 CNPC의 경우, 2015년까지 해외 원유생산량을 400만 b/d로 2배 증대해야 함
 - 이에 따라 근시일 내 대형 자산 확보가 가능한 구소련 외 지역에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기업은 해외 생산량 전부를 자국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스왑 계약을 이용하고 해외 정제시설에 투자하거나 국영 트레이딩기업인 Unipecc과 Chinaoil이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방법 사용

□ 중국, 향후 셰일가스 시추비용 절감 전망(10월 28일)

- 중국 기업들은 셰일가스 시추 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자국 시추 설비로 대규모 시추를 할 경우 추가적인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중국 국영기업 Sinopec은 동사의 셰일가스 생산이 안정화되고 시추 기간과 비용이 줄었다고 언급
 - 동사는 현재 Sichuan성의 Fuling 프로젝트 내 5개 생산정에서 2.12 Mcf¹²⁾/d 생산 중
 - 시추기간도 초기보다 단축되어 1공 당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추, 수압파쇄 및 유전 서비스 기업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1공 당 시추비용은 1,470만 달러로 크게 감소

12) Mcf: Million cubic feet(백만 입방피트)

- 중국 유전 서비스기업인 SPT는 2~3년 내 시추 1공 당 총비용이 650만 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중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2~3km 심도를 시추할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3.5~4개월이 소요되며 미국에서 시추 1공에 약 327만 달러가 소요될 때 중국은 동일한 조건에서 1,307만 달러가 필요
 - 셰일가스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남서부 Sichuan성 에너지청 관계자는 중국 국영 CNPC와 Sinopec이 2012년 Sichuan성에서 2.47 Bcf를 생산했으며 2013년에는 3.53 Bcf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 Osaka Gas, 자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으로 LNG계약 가격협상력 증대 기대(11월 18일)**
- 일본은 그동안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연동된 높은 가격으로 가스 수입
 -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LNG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수입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
 - 일본 내 2위 규모의 가스설비회사인 Osaka Gas는 자국 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자원 덕분에 향후 LNG 거래계약에서 가격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 내 Kumano 남부해에 일본의 14년간 수요량에 해당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40 Tcf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 2013년 3월 Aichi현 Daini-Atsumi Knoll 해상에서 일본 JOGMEC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을 6일간 진행
 - 당시 평균 약 70만 cf/d (총 420만 cf)를 생산했으나 기계 설비 고장으로 중지되었으며 현재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이나 기술적인 난제 산적
- **Shell, 중국 셰일가스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움직임(11월 14일)**
- 중국 Sinopec과 네덜란드 Shell이 지금까지 탐사가 거의 이뤄지지

- 않았던 중국 내륙 중부에서 두 번째 세일가스 탐사시추를 진행 중
 - Sinopec이 운영권자로서 2012년 6월 동 광구에 대한 공동연구계약 체결
 - 2012년 8월 Xiang E Xi 세일광구에서 예정된 3공 중 첫 번째 탐사정 (Liye-1)을 시추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폐쇄
 - 현재 두 번째 탐사정인 Engye-1을 시추하고 있으며 세 번째 시추 계획은 미공개
- 2012년 3월, Shell은 또 다른 국영기업 CNPC와 Sichuan성의 Fushun-Yongchuan 광구에 대한 PSC(생산물분배계약) 체결
 - 이는 중국이 세일광구에 대해 외국 메이저 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PSC이며, 동 광구에서는 상업적 생산을 가능할 평가정 시추가 진행 중
 - Shell은 2013년 10억 달러 이상을 중국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며 연간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할 예정

□ 일본, 캐나다와 LNG 등 에너지 협약 체결(12월 2일)

- 12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캐나다 BC주가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에너지부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에너지협약 체결
 - 금번 협정은 BC주 내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주내 기반시설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환경평가와 규제 조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
 - GTL 기술, 에너지 정책, 에너지수급 전망 등에 대한 정보 교환도 포함
 - METI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협정에 따라 고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연례 회의로 신설
- METI는 BC주에서 진행 중인 LNG 수출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설과 환경 및 안전 규정에 대한 기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국영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인 JOGMEC과 국제협력은행 JBIC, 무역보험기관인 NEXI 등을 활용할 계획

- BC주는 부존자원인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LNG 산업을 전략적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
 - 현재 서부연안에 위치한 Kitimat, Prince Rupert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LNG 프로젝트(생산용량 연간 최대 약 1억 톤) 추진 중
- **일본,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해 북미 LNG도입과 석탄화력발전 활용 계획(1월)**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장관이 2014년 북미 지역의 저렴한 LNG 도입 및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통해 화석연료 비용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 일본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수입 비용이 급증해 2011년에 31년 만에 무역적자가 발생한 이래, 2013년에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인 10조엔(950억 달러) 기록
 - 다만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핵발전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기본계획’이 내각 승인을 대기 중
 - 한편, 2013년 12월 일본내각은 전년 632억엔 대비 약 1% 증가한 642억엔을 2014년 유가스 및 석탄 자원개발 예산으로 승인
 -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부분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예산으로 전년 87억엔 대비 46% 증가한 127억엔 배정
 - 이 예산으로 METI는 2014년 하절기에 자국 Joetsu 해상 등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시험을 진행할 예정

2. M&A 거래

- **BP, 모로코 3개 해상광구 지분 인수(10월 16일)**
 - BP가 미국 Kosmos Energy가 운영 중인 모로코 내 3개 해상광구 지분 인수에 합의했으며, 이로써 모로코 상류사업에 진출
 - BP는 금번 거래로 Agadir 분지에 위치한 Essaouira(45%), Tarhazoute(45%), Foum Assaka(26.325%) 등 총 3개 광구 지분 취득,

향후 각 광구별 1공의 시추 비용 부담 예정

- 한편 지분비율과는 무관하게 Kosmos가 3개 광구의 운영권을 그대로 유지

□ 미국 Devon, Eagle Ford 자산 인수(11월 20일)

- 2013년 미국 최대의 자산 거래가 미국 독립계 석유회사인 Devon Energy에 의해 이루어짐
 - Devon은 11월 20일 Eagle Ford 지역에 석유자산을 보유한 미 독립계 석유회사인 GeoSouthern Energy를 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피인수 회사인 GeoSouthern의 생산량은 5.3만 boe/d이며, 위험이 반영된 탐사자원량은 4억 boe
 - 시추가능 면적은 Texas주 DeWitt 카운티에 5만 에이커, Lavaca 카운티에 3.2만 에이커 등 총 8.2만 에이커(332km²)에 달함
 - 현재 생산량 중 56%는 경질원유이며 20%는 NGL, 24%는 천연가스로 구성
 - 금번 인수를 통해 Devon의 원유 비중은 25%에서 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인수한 Eagle Ford 자산에서 Devon의 지분은 50%이며, 공동운영사인 BHP가 50%의 지분 보유
- Devon은 미국 멕시코만 및 브라질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북미육상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질원유 비중이 높은 Eagle Ford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인수단가가 에이커당 7.3만 달러로 최근 다른 거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평가됨
 - Devon은 매입한 Eagle Ford 자산에서 매년 25%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14만 boe/d의 생산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해 13억 달러의 자본투자비를 지출하고 230공을 시추할 계획

□ PetroChina, 브라질 국영기업 Petrobras가 보유한 페루 석유·가스 자산 매입(11월 14일)

- PetroChina는 Petrobras가 보유한 페루 석유·가스 자산을 26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발표
 - 매입 자산은 Petrobras Energia Peru가 보유한 Lot X 유전(100%)과 Lot 58(100%), Lot 57(46.16%) 가스전
 - Lot X는 생산량 1.6만 b/d의 성숙유전, Lot 58, Lot 57은 신규가스전
- 금번 거래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양호한 페루 사업을 확장할 기회 획득
 - 페루는 NGL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가스매장량도 상당해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EIA에 따르면 페루 원유매장량은 5.8억 배럴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감소해 왔으나, NGL 생산 증대로 인해 NGL 포함 생산량은 점차 증가해 16만 b/d 수준
 - 또한 페루 가스매장량은 12.7 Tcf로 이는 중남미 국가 중 4번째 규모
 - PetroChina는 금번 자산 매입에 자사 뿐 아니라 중국 타 국영기업인 CNPC의 자회사인 CNPC Exploration & Development, CNOOC International 등도 참여했다고 발표
- 한편 Petrobras는 금번 거래로 부채증가 및 투자수요 증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 해소
 - Petrobras는 브라질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 누적
 - 또한 2017년까지 총 2,36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자금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 이를 위해 Petrobras는 99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과 함께 브라질 암염하부층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SK 이노베이션, 아프리카 광구 지분매입(12월 18일)

- SK는 아일랜드 Fastnet Oil and Gas가 보유한 모로코 해상 Foum Assaka 광구 지분 18.75% 중 절반인 9.375%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금번 거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Fastnet 지분 몫의 시추비용(1·2차 탐사정 각각 1억 달러 한도)을 대납하게 됨
- 이에 따라 Fastnet은 시추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추는 2014년 1분기에 착수할 계획
- 동 거래에 따라 Foum Assaka 광구의 지분구조는 Kosmos(운영권자) 29.925%, BP 26.325%, 모로코 국영 ONHYM 25%, Fastnet과 SK이노베이션이 각 9.375% 보유

□ ExxonMobil, 이라크 WestQurna 1 유전의 지분 일부 매각(12월)

- ExxonMobil이 WestQurna 1 유전 지분 60% 중 35%를 중국 국영 PetroChina(25%)와 인도네시아 국영 Pertamina(10%)에 각각 매각
 - 동 거래 이후에도 ExxonMobil은 운영권(25%)을 유지하며, 잔여지분은 PetroChina(25%), 이라크 국영 Oil Exploration Company(25%), Shell(15%), Pertamina(10%)가 각각 보유
- 2010년 ExxonMobil과 Shell은 이라크 중앙정부와 계약기간 20년의 WestQurna 1 유전 개발 서비스계약 체결
 - 동 계약의 개발 수수료는 배럴당 1.9달러로 ExxonMobil은 당시 28.5만 b/d 규모의 WestQurna 1 유전의 생산량을 2017년까지 222.5만 b/d 수준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11년 ExxonMobil이 쿠르드자치정부(KRG)와 6개의 PSC를 체결함에 따라 상황 급변
 - 중앙정부는 ExxonMobil을 비난하며, KRG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자국 상류 부문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 한편, PetroChina와 Pertamina는 금번 거래를 통해 중동지역 사업을 더욱 확장
 - PetroChina 관계자는 WestQurna 1 사업 참여가 자사의 이라크 내 기 진출 프로젝트(Rumaila, Halfaya, Al-Ahdab 유전)와 시너지 기대
 - 금번 거래로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NPC(PetroChina 모회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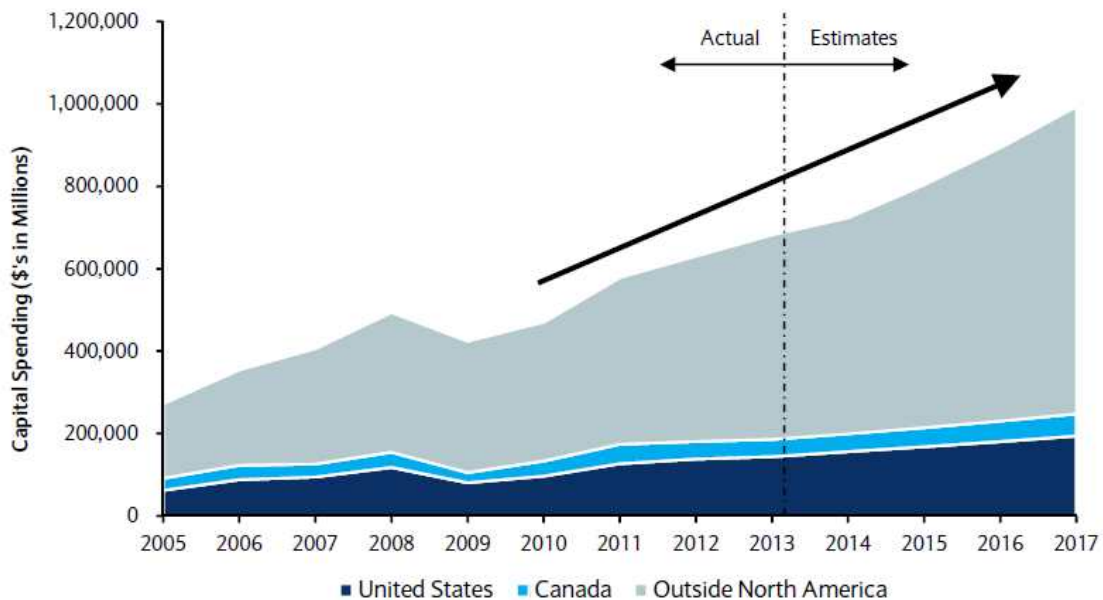
CNOOC는 각기 4개, 3개의 이라크 프로젝트에 참여, 349억 배럴의 확인매장량을 통제하며 독보적인 위치 차지

- Pertamina 역시 이라크 자산 취득이 자사 상류부문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III. 주요 이슈 -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 전망

- Barclays는 현재 석유·가스산업이 장기간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글로벌 상승세에 있으며,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비가 전년대비 6.1% 증가한 7,2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¹³⁾
 - 특히 북미 상류부문 투자가 7.3% 증가하며 2014년 세계 상류부문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북미 지역 투자비 증가는 주로 생산량 증가와 수평정 시추 증가에 기인하며 2014년 미국은 1,560억 달러(전년대비 8.5% 증가), 캐나다는 430억 달러(전년대비 3.2% 증가)를 상류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

< 세계 E&P 투자규모 추이 및 전망 >



자료: Barclays(2013.12.)

13) 총 309개 석유·가스기업을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대상 기업들은 Brent \$98/B, WTI \$89/B, 미 헨리허브 천연가스가격 \$3.66/MMBtu를 기준으로 2013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 미국은 텍사스 서부의 Permian 분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할 전망
 - Apache, Anadarko, Devon 등 전통적인 Permian 참여기업들이 투자비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최근 미국 독립계 기업인 QEP Resources도 Permian 자산 매입계획을 발표
 - 이 외에 Bakken Shale과 South Central Oklahoma Oil Province, Colorado, Niobrara, Utica 등에서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북미 외 지역에서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5,240억 달러가 상류 부문에 투자될 전망
 - 2014년 중동 지역 상류부문 투자비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Saudi Aramco와 Kuwait Oil Co.의 자본투자비 증대에 따라 유전 서비스 시장 급증
 - 남미 상류부문 투자비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12.8% 증가한 84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
 - 멕시코 Pemex, 베네수엘라 PDVSA가 투자를 주도하는 반면, 브라질 Petrobras는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기업형태별 세계 E&P 투자비 >

	2013A	2014E	+/-	%
US Spending	143,989.3	156,163.6	12,174.4	8.5%
Canada Spending	41,738.2	43,068.8	1,330.6	3.2%
NAM Spending:	\$185,727	\$199,232	\$13,505	7.3%
Middle East	34,791.0	39,812.0	5,021.0	14.4%
Latin America	74,590.0	84,159.0	9,569.0	12.8%
Russia/FSU	53,940.1	59,844.0	5,903.9	10.9%
Europe	46,684.3	50,312.6	3,628.3	7.8%
India, Asia & Australia	120,928.0	124,178.2	3,250.2	2.7%
Majors (Int'l Spending)	113,992.0	115,413.0	1,421.0	1.2%
Africa	25,241.0	25,337.1	96.1	0.4%
NAM Independents (Int'l Spending)	19,395.0	18,547.0	(848.0)	-4.4%
Other	6,401.2	6,475.6	74.4	1.2%
Int'l Spending:	\$495,963	\$524,078	\$28,116	5.7%
Worldwide E&P Spending:	\$681,690	\$723,311	\$41,621	6.1%

자료: Barclays(2013.12.)

< 참고자료 >

1. www.koreapds.com
2. Petronet.co.kr
3.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2013.1월)
4. Barclays, Global 2014 E&P Spending Outlook(2013.12.9.)
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끝)